

지역 매아리



정읍 소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올해 운영 방향 논의

소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번 사무소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6월에 예정된 전라북도사회 공동 모금회 배분 사업 신청과 관련, 긴급 구호사업과 특화사업의 예산도 균형을 맞춰 편성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특화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을 결정했다"며 "지난해에도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고 이후에도 지원을 원하는 어르신들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선기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살피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현종 면장은 "면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언제나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실정에 밝은 위원님들의 강점을 살려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복면, 민민의 장 선정

복면은 지난 26일 민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민민의 장을 선정했다. 애항장은 김한승(67, 서울특별시 중구) 씨, 봉사장은 김향남(63, 복면 신령리) 씨, 효열장은 최해리(56, 복면 한교리) 씨가 선정됐다.

면은 지역 내 기관 단체장과 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민의 장 시상식은 4월 1일 복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5회 복면민민의 날 화합 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표 건강먹거리로 발돋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우수 농·수·축·임산물·가공품 로고 부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 등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정 고창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생산되는 산물과 이를 활용한 제조품, 서비스를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넣어 판매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의 제품임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박, 매론, 복분자 블루베리, 쌀, 감 등 45개 업체 114품목이 인증받아 로고를 사용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신청은 공인기관에서 친환경인증 및 무항생제 등의 인증을 받은 고창 농·수·축·임·천연자원 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가와 업체 또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자란 산물을 70%이상 활용하고 고창에서 제조하며, 식품제조관련인증(HACCP 등)업체에서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는 업체 관계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이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품 등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유네스코 고창해풍페이지(www.gochang.go.kr/gbr/index.gochang)'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브랜드인증 신청서 외에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가공식품)에 따른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고창생물권보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인증신청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와 승인 절차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사업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한 고창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 건강먹거리로써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과 동시에 고창군 주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063-560-2800)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범시민적 독서 문화 조성 앞장

정읍기적의도서관, 31일 한 권의 책 선포식

한 권의 책은 정읍 시민들이 선정된 한권의 책을 읽고, 공감하고, 나누는 릴레이 형식의 독서운동이다.

선포식은 한 권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포와 저자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한 권의 책에는 일반도서로 오연호의 '우리로 사랑할 수 있을까'와 아동도서로 정읍 작가인 이라리의 '비확인 바이러스'가 선정됐다.

'우리로 사랑할 수 있을까'는 행복추구와 행복을 위한 교육과 철학 등 다양한 메시지를, '비확인 바이러스'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3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이어진다.

기적의도서관은 이와 연계해 8월 중 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연합독서캠프를 운영하고 9월에는 북 콘서트 11월에는 문학가향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 권의 책 독서운동'도 진행한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범시민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적의도서관' 이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성숙한 독서문화 기반을 다지는 물론 선진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박람회' 참가 홍보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이 '제4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정읍의 구절초 산업 알리기에 나선다.

특산물 박람회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 BEXCO 제 2전시장에서 열린다.

특산물 박람회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모두 250개 업체에서 참가한다.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은 박람회에서 구절초 화장품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구절초꽃차와 구절초 향수, 구절초 베게, 구절초 환, 액기스 등 구절초와 관련된 상품 총 30

여종을 홍보·판매한다.

또 구절초 꽃차 시음회, 구절초 아로마 체험, 구절초 강정 시식회를 통해 구절초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구절초의 효능을 알리는 물론 정읍구절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은 2017년~2020년까지 30억원이 투입되는 구절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절초 연구와 상품 개발, 가공 체험 시설 지원, 방문자센터 신축 등을 통해 구절초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오늘 개소

부안의 대표관광명소 채석강 인근에 변산반도국립공원탐방안내소가 문을 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부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탐방안내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소는 연면적 997.33㎡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 외부에는 야외전시공간과 바다전망대, 무대 등을 조성했으며, 내부는 탐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공간과 지질·해양관, 역사문화관, 어린이체험관, 야외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49억9000만원이다.

탐방안내소는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며,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에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화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부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탐방안내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으며 별도의 관람료는 없다.

김병재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소한 탐방안내소가 탐방정보 제공과 체험학습 등

다변화된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돌발해충 월동난 예찰 사전 방제 총력

고창군이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와 산림지에 발생하는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월동난 예찰조사를 실시해 산림면적과 이산된 일원에서 갈색날개매미충 월동난을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은 5월경에 부화하여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병 피해를 준다.

지난해 고창에는 꽃매미가 조사면적 대비 6%가 발생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갈색날개매미충은 30%가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다.

돌발해충은 발생 시 농경지와 인근

산림 지역까지 이동하는 서식의 특성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군은 4월초까지 발생면적 사전조사를 실시, 알이 80% 부화되는 약충기인 5월 하순경에 방제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5월 초까지 각 읍면 해당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 적기방제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은 돌발해충을 발견할시 가까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by Gangsanmyeongju.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es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 and phone number 'TEL : 063-584-9960'.